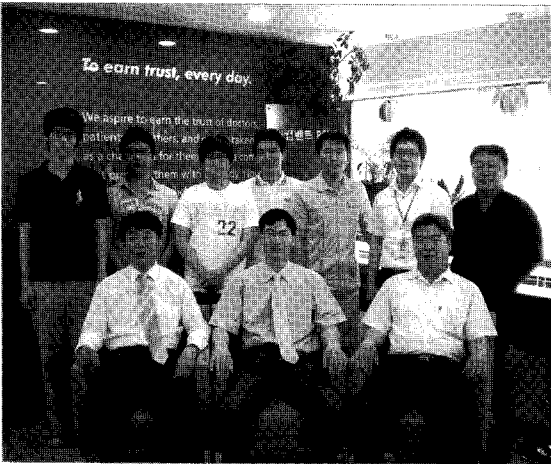


인터베트코리아

2010년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인터베트코리아(대표이사 서승원)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5주간에 걸쳐 국내 수의과대학 재학생 중 5명을 선발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하계 방학 기간에 전국 5개 대학에서 산업동물 및 동물약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산업동물 수의사와 동행한 농장 방문, 대학 연구실에서의 실험실습, 농장 체험실습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현장 실습 전에 질병과 차단방역 등 선행 교육을 실시했다.

인터베트코리아 서승원 대표이사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장래의 수의사가 될 학생들이 산업동물 및 동물약품 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실시했으며,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하제일사료

파워엘리트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천하제일사료(대표이사 윤하운)는 지난 5월부터 총 3개월간 실시된 제1기 파워엘리트 양성 교육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지난 8월 7일 중앙연구소에서 윤하운 총괄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게는 시상하는 한편 교육생 전원의 수료식을 진행했다.

사내교육과정인 파워엘리트 양성교육은 천하제일이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사료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으로 분야별 전문지식은 물론, 경영 캠퍼스를 그릴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춘 차세대 엘리트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업계 1위, 천하제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8대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법을 학습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문제해결 5단계를 응용한 팀 별 실습으로 이루어져 팀원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는 창의적인 사업제안과 다양한 의견개진을 촉진시켜 상호교류의 시간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사료판매량 월 11만톤 기록 달성



천하제일사료는 7월 사료판매량이 11만톤으로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에 106만톤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신기록을 세운 바가 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사료연구에 박차를 가해 2010년 상반기에 60만톤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 이는 상반기 업계 신장률이 108%인 것에 비하면 128%나 증가한 경이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 12월 중에는 120만톤 돌파는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120만톤 달성은 천하제일이 2011년에 도달하기로 한 목표로 이를 1년이나 앞당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천하제일사료 이기웅 전무는 "상반기의 128% 신장률은 고객의 꾸준한 사랑과 천하제일 직원 모두의 고객 성공을 향한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200만톤 달성을 위한 장기 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8월 2일 월 판매량이

건립 이래 최고치인 11만톤을 달성한 기념행사를 갖고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천하제일사료의 윤하운 사장, 김종배 부사장, 이기웅 전무, 정춘오 상무, 정진호 상무, 정용락 부장, 김철수 기감 등 천하제일사료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대전공장, 무재해 3배수 달성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7월 23일 대전공장에서 무재해 3배수 기록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천하제일사료에서 가장 역사 깊은 대전공장의 무재해 기간은 3배수인 총 1050일(2007년 9월 8일 무재해 개시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천하제일사료 대전공장이 이처럼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했다.

먼저 작업 전 준비운동과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순서에 의해 일을 하되, 결코 서두르지 않는 원칙을 준수한다. 항상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각 위험지역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한다. 그리고 가장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보수공사, 청소 등의 기타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멈

취 있어야 하는데, 이를 2중 3중으로 꼭 확인하여 작업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TPM(전사적 종합 생산성 관리 : Total Productivity Management) 활동원칙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웠다. 이에 목표와 활동 정신에 안전을 더한 원칙을 항상 준수한다.

이처럼 천하제일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재해 3배수 달성이 가능했다.

천하제일사료의 생산관리본부장 김종배 부사장은 "3배 달성에 이어 앞으로도 무재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재해 운동 4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고객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AOCS LPP AWARD 1등 선정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박호인) 사료/축산연구소가 2009~ 2010 미국 유지화학협회(AOCS -

American Oil Chemists' Society)가 주관한 LPP(Laboratory Proficiency Program) AWARD에서 영예의 1등에 선정됐다.

LPP는 시험관련 국제 비교속련도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30여개의 시험기관이 경쟁하여 자웅을 겨루는 대회로 '시험기관의 World Cup'이라 할 수 있다. 1년간 전체 4회, 총 8샘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산출한 시험기관이 선정되며, 그 심사기준이 까다롭기로 정평 나 있다.

이번 평가의 시험항목은 아플라톡신으로 가축의 사료섭취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 간 손상 등을 일으키는 곰팡이독소로 사료 원료안전성 평가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KOLAS공인 인정항목으로 이번 LPP AWARD를 수상으로 CJ사료/축산연구소의 시험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CJ사료의 R&D적 승리는 AOCS 웹사이트는 물론 2010년 9월호 AOCS Membership magazine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준비한 CJ사료/축산연구소 송봉한 R&D는 "CJ축산/연구소의 분석역량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세계 최고의 분석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이 인정하는 안전한 사료생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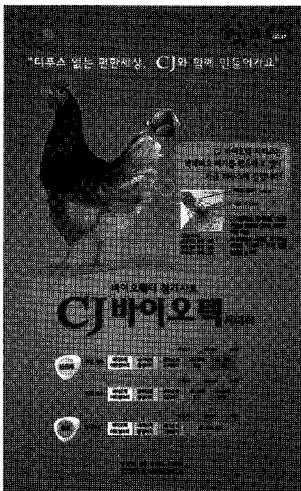
한편 CJ제일제당 사료BU는 국내 배합사료업계 최초로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세계적인 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시험기관으로 공인 받은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HACCP과 ISO인증도 보유하고 있어 제품 안전성과 신선한 품질은 업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CJ사료/축산연구소는 세계수준의

R&D양성과 OnlyOne적인 축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사업장에 보급하는 Basecamp의 역할도 특특히 수행하고 있다.

익균은 그대로 놔두고 병원성 세균만 골라 파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생물로 세균을 잡는 원리이기에 내성이나 생체 잔류 등의 염려가 없다.

‘CJ바이오텍’ 농가수익의 해결사



CJ제일제당 사료 BU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친환경 양계 사료 ‘CJ바이오텍’이 농가수익의 해결사로 떠오르며 전파매체와 각종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하고 있다.

CJ바이오텍을 친환경제품이라 부르는 이유는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몸에 나쁜 세균은 물론 유익균까지 없애기에 지속적인 사용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케 해 사료 내 항생제 첨가를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11년 7월부터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어 있다.

CJ바이오텍은 세균성 질병이 창궐하는 여름 특히, 티푸스 병력이 있는 농장, 환기 불량으로 어려움에 놓인 농장의 폐사율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

CJ바이오텍은 특정 병원성 세균을 파괴하는 미생물을 활용한 신개념 사료용 첨가제 ‘바이오텍터’가 첨가된 제품이다.

‘바이오텍터’는 특정 세균에만 작용하는 기생형 미생물인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활발한 독서경영으로 주목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의 독서 지원 프로그램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부그룹은 장기 불황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책에서 얻은 무한한 정보와 지식, 통찰력 등을 바탕으로 탁월한 직무능력과 혁신적 경영자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독서경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급별·업무별 독서토론회를 확대 실시하여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당사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과장급 이상 중간리더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양서(良書)를 읽고 토론하는 ‘예비경영자모임’을 매

주 월요일 오전으로 정례화 했고, 사원·대리급 이하 젊은 사원을 중심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독서토론회 '서부 이노베이터'를 신설 운영한다.

또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팀별 필독서를 자체 선정해 읽은 후, 업무에 적용할 점을 토론했다는 '팀 독서스터디'를 연 2분기 이상 의무 시행토록 했다.

다음으로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구입해 주면서 2010년 분야별 신규 필독서 다량 비치 등 사내 도서관을 대폭 정비했고, 도서 기증·독후감 제출 건수 등에 '도서 마일리지'를 도입·포상하는 등 임직원의 자율적 독서 동기를 북돋아 줄 독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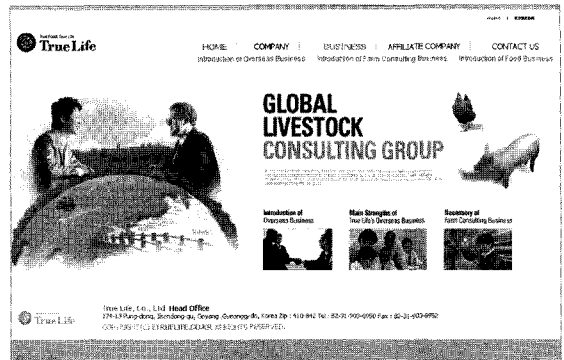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내 지식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내외 정보 통합 및 전사적인 독서경영을 위해 '지식공유사이트'를 운영, 전 직원에 세분화된 독서통신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직원들은 1년에 4권 이상 직급 및 부서별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지식공유사이트에 올려야 하는데, 특히 신입사원과 승진대상자는 서부그룹의 정체성과 비전에 부합하는 도서와 직급별 권장도서를 정독한 뒤 서평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서부그룹은 한편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도서로 '사랑의 도서바자회'를 펼쳐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 재활기관에 기부하는 등 책을 통한 나눔경영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영문 공식 홈페이지 구축

(주)트루라이프는 글로벌 농축산 컨설팅 역량을 적극 알리고 해외 농축산컨설팅 타깃 국가 확대를 위해 영문 공식 홈페이지(www.etruelife.co.kr/eng)를 구축했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주)트루라이프 영문 홈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외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화려한 플래시나 이미지를 간소화하고 필수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해외 접속자가 찾기 쉽도록 '사업소개' 및 '해외사업의 강점 및 경쟁력', '왜 축산업에 컨설팅이 필요한가?' 등 핵심 정보를 메인페이지 중앙에 배치했고 기업 소개 및 해외 사업 영역 안내, 관계사 및 연락처 등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디자인 역시 글로벌 농축산컨설팅 전문그룹으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자연친화적인 그린과 올리브 컬러를 주조로 하여 차분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그려냈다.

홍보팀 남민정 팀장은 "이번에 새로 오픈한 영문 홈페이지는 트루라이프 글로벌 농축산 컨설팅 브랜드력을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는 온라인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당사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주)트루라이프 영문 홈페이지는 기존 기업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ENGLISH'를 누르거나 도메인 주소(www.etruelife.co.kr/eng)를 입력하면 바로 링크된다.

(주)한국일오삼농산

처갓집 썸머 페스티벌 실시



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센 불을 이용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기법으로 만드는 와락치킨과 레몬소스와 파 채를 넣어 레몬파닭은 기존 후라이드 치킨의 맛에 담백함과 상큼함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출시와 동시에 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G-Market과 연동하여 온라인상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신동욱 대표이사는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들의 소비패턴을 감안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신제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서울사무실 이전

(주)대성미생물연구소(대표이사 조항원)는 새로운 동지에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 서울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2-7 HCN서초방송빌딩 7층
- 전화 : (02)533-1104
 - 영업부 : (02)533-1104(팩스 : 02-501-0356)
 - 경리부 : (02)3430-5644~5647
 - 총무·기획 : (02)3430-5622~5626
 - 전산실 : (02)3430-5655~5657
 - 학술개발부 : (02)3430-5633~5638
 - 수출부 : (02)3430-5666~5668
- 팩스 : (02)554-1104
- 제품상담 무료전화 : 080-553-1100

한·페루 FTA 협상 타결

2009년 3월부터 페루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지난 8월 30일(현지 시간) 타결되었다.

우리 측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107개 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다른 민감 품목(202개)에 대해서는 10년 초과 장기 관세로 철폐하기로 했다.

페루측은 쌀과 쌀 관련 가공품(4개 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농수산물 79개 품목에 대해 10년 초과 장기 관세로 철폐한 반면, 농산물 680개(농수산물 68.8%)와 수산물 156개(수산물의 91.2%)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도 합의했다. 이어 한국은 닭고기와 무당 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에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SPS 위원회 설치,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된 이후, 금년 11월경 협정문에 가세명하기로 합의했다.